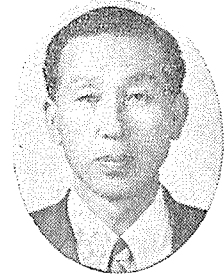


太白山脈 貫通 難工事 解決

韓國沿岸의 設計波決定研究
土木技術 診斷 및 技術諮問



徐英甲 會長

몇일前 어느 T.V. 放送局이 高校生 相對의 獎學퀴즈에서 “주어진 自然條件을 克服하고 開發하며 利用하여 人間社會를 보다 나은 福祉社會로 만들기 위해 灌溉事業, 水利施設, 鐵橋, 터널, 港灣, 道路, 等에 關한 學問을 工夫하려던 무슨 科를 擇하면 되느냐”라는 물음을 쉽게 알아맞추지 못하고 두번째 學生이 가깝스르 “土木工學科”라고 答해서 點數를 얻는 것을 보았다. 물론 各者의 指向하는 分野外의 學問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周邊에 있는 高速道路만이라도 생각할 때 그것이 土木技術의 所産이라는 것쯤은 高校 2,3年生이면 常識으로 알고 있을 법 한데……하고, 나는 若干 입맛이 쓴 기분이었다.

自古로 國家의 發展은 그 基本이 土木事業에 있다고 해도 決코 過言이 아닌만큼 土木에 關한 學術研究의 旗手요, 學術發表의 뒷받침이요, 大本山인 大韓土木學會의 存在와 役割이 重巨大하다는 것은 새삼 論할바도 아니다.

그런데 現 우리나라의 土木學會를 볼 때 純粹 學會의 性格과 技術者協會의 性格 即, 學者의 施工의 綜合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運營은 모든 豫算의 뒷받침을 自體에서 調達하여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學術研磨技術向上에 적지 않은 隘路가 없지 않다.

우선 이러한 難點의 打開策으로 技術陣들의 活躍을 期待해야 하며, 이 技術者들의 活動舞臺의 造成은 施政當局 即, 建設部, 서울市, 鐵道廳, 各道建設局 等の 計劃과 豫算에 依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建設業體들로 하여금 工事의 效率의인 進行을 위해서 또는 難工事나 稀奇한 工法에 있어서 學術의인 뒷받침이 必要할 때는 土木學會의 力量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會員들의 研究費 및 實驗費는 充分히 마련이 될 것으로 안다.

우리 學會가 現在 進行中 또는 計劃中인 일은

1. 約 50年前에 架設된 漢江아아치(arch)橋(第一漢江橋)의 上部構造의 應力測定(서울市).
2. 韓國沿岸의 設計派 決定을 위한 컴퓨터프로 그램 開發研究(建設部).
3. 橋梁下部構造設計基準 作成(建設研究所)
4. 鐵筋콘크리트 補強法 創案中(學者와 技術者들 協議下에)
5. 各界의 依賴로 各種 技術診斷 및 技術諮問에 應하고 있으며,

6. 10月中에는 釜山에서 學術發表會를 開催하며 여기서 發表된 論文集을 發刊을 豫定이다.

그간 險峻한 太白山脈을 가로 鑿는 難工事를 無事히 끝맺음 하고 開通을 한 嶺東高速道路, 겨우 4,500噸級 船舶이나 드나들던 仁川港은 이제 는 먼 옛애기이고, 8년이란 歲月과 特殊工法에 의한 우리 技術陣의 凱歌로 이젠 50,000噸級 大形船舶이 出入할 수 있게 된 東洋最大의 開門式 獨크, 이 외에 最近 우리나라 各處의 손꼽히는 土木工事를 볼때 모두가 國內技術陣만으로 이루어졌음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또한 土木學會 代表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